

“벤타일”의 기원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던 때, 영국의 수송선들이 선단을 이루고 북극해를 거쳐 미국을 오가면서 막대한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이들 수송선단은 독일 잠수함의 표적이 되어 상당한 피해를 당하였다.

영국의 처칠 수상은 혹한의 북극을 지나다니면서 근무하는 수송선의 선원 뿐만 아니라 호송임무를 띠고 근무하는 해군요원과 침몰함선의 승무원 등이 구조될 때까지 영하의 바닷속에서 표류하게 되어, 구조될 때까지 바닷속에서도 따스하고 통기성(通氣性)이 있으면서도 방수성(防水性)이 있는 보호복(保護服)의 개발을 영국 맨체스터의 셸리 인스티튜트(Shirley Institute)에 의뢰하였다.

이 보호복의 원단을 “벤타일(ventile)”이라고 하였고, 섬유장이 긴 원면을 100%사용하여 고밀도로 제직함으로써 어느 정도 습기를 흡수하면 면섬유가 팽윤하여 경·위사의 공극(空隙)이 완전히 메꾸어져, 비닐코팅한 직물이나 고무를 도포한 제품처럼 발수(撥水), 방수성이 좋아지면서 통기성도 양호한 것이 특징이다.

이 내수복(耐水服)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극해의 극한상황에서 근무하는 많은 수송요원이나 호송원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침몰선의 승무원들을 구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